

포근한 날씨...쌀쌀한 겨울의류 매출

아웃도어, 광주신세계 전년비 5.8%·롯데백 19% 줄어

모피·코트·패딩 동반 부진에 의류업계 대대적 할인행사

포근한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잦은 비 탓에 초겨울 옷 매출이 줄고 있다. 특히 가을과 초겨울을 겨냥한 등산복 매출이 크게 줄어 관련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2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날 현재 아웃도어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점포 신장률 8.6%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이며, 생활 24.7%, 구두·핸드백 19.3%, 여성 15.2%의 신장률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0월 26일~

지난 22일 아웃도어 매출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였다. 통상 가을과 초겨울에 산행을 즐기는 소비자가 많아 관련 아웃도어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과는 달리 올해는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아웃도어 시장이 침체한 탓도 있지만 비가 자주와 야외 활동이 줄었고, 날씨가 포근해 가능성 아웃도어의 판매가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유통업체는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 탓에 많은 재고가 유통됐는데, 올해 역시 날씨 영향으로 가을·겨울(F/W) 시즌 신상품 판매가 부진해 재고만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피는 추위에 민감한 상품의 판매가 더욱 저조하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입점 패션 브랜드의 신상품 소진율을 조사한 결과, 이날 현재 평균 소진율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약 3~5% 포인트(P) 낮았다. 코트·패딩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아우터(외출복)의 소진율이 뚜렷하게 저조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다양한 겨울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본점(20~24일), 잠실점(25~26일), 일산점(25~29일) 등 10개 점포는 '블랙 퍼 데이(Black FUR Day)' 행사를 열고 150억 원어치 모피 상품을 싸게 내놓는다. 주요 상품은 ▲진도모피 블랙메이베스트 219만원 ▲국제모피 폭스베스트 100만원 ▲근화모피 블랙위메일하프코트 240만원 등이다. 보브·시슬리·BON·위모 등 개별 남성·여성패션 브랜드도 올해 출시된 가을·겨울(F/W) 신상품 가운데 10~20가지 품목을 40~50% 싸게 내놓는다. 보브 코트가 22만8000원, BON 코트가 19만9000원, 위모 코트가 11만9000원, 레노마 패딩 코트가 31만9000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3일 농협광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3대역 근절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실천 문구를 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부정선거·인사청탁·사고 없는 광주농협” 선포

3대역 근절 결의대회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23일 오후 본부 대강당에서 광주 지역 농협 중앙회 계열사 각 법인대표와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규정한 3대역 근절’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연말인사와 관련한 청탁 등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고 농협 내

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본부는 지난 16일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장 선거 공명선거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20일에는 광주검사국 주재로 지역농협 감사팀장 및 지점감사역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업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근 본부장은 “중앙회장 공명선거 추진과 인사청탁 근절, 사고 근절대책 추진 등 3대역 근절의 핵심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농협 광주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선두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전력분야 사물인터넷 협의체 구축

기술 융합 새 모델 발굴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력분야 IoT(사물인터넷)산업의 진흥·확산을 위해 전기·전자·ICT 등 관련 산업·연구계와 함께하는 전력IoT 협의체를 구축하고, 전력IoT산업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IoT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2020년 세계시장 규모가 1조 20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아직 성장 초기단계에 있어 시장전망이 밝아지며 가전 및 헬스분야 등은 시장이 확

대되고 있는 반면, 전력분야에서는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전은 전력IoT ‘SPIN(Smart Power IoT Network)’ 구축을 통한 선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전력IoT의 표준과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격전장 ‘모바일 뱅크’

우리은행·신한·KEB 선점 각축

모바일 은행(모바일 뱅크·Mobile Bank) 분야에서 격전이 벌어질 환경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에 이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내달 새로운 모바일 뱅크 브랜드를 내세워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은행을 구현한 모바일 뱅크는 그간 틈새 시장으로 여겨진 연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주로 의존했던 5~6등급의 중신용자들이 좀 더 싼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금리시장을 놓고 벌어질 한판 승부는 지난 5월 우리은행이 ‘위비뱅크’를 출시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위비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중금리 대출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을 출시해 성공을 거뒀다. 월평균 80여 명의 대출을 집행해 이달 초순까지 400여 명의 누적 대출을 기록했다. 위비뱅크는 앞으로 설문조사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내달 중 새로운 모바일 뱅크 브랜드로 ‘씨니뱅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씨니뱅크는 여러 벤처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기술을 망라한 모바일 전문은행으로,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인출도 가능하고, 앱에서의 외화환전·신용대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도 이르면 다음 달 모바일 전문은행인 ‘원큐뱅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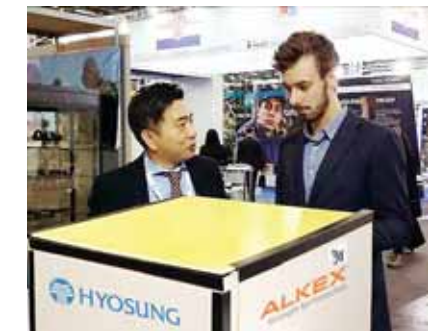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03.70 (+13.84) 금리 (국고채 3년) 1.76% (0.00)
- ▲ 코스닥 688.29 (+3.13) ▲ 환율 (USD) 1158.50원 (+4.20)

효성, 세계 최대 규격 방탄 패널 선보여

파리 국제방위산업전시회...건설·국방·방탄차 등 응용

효성은 지난 17~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밀리폴 파리 2015(Milipol Paris 2015)’에서 아라미드 섬유 알렉스(ALKEX)로 만든 세계 최대 규격의 방탄 패널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방탄 패널은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탄소 섬유 등에 레진(Resin·수지)을 분사시켜 제작한 제품으로 건설·국방·에너지 산업과 방호용·방탄차량 등에 응용된다. 효성이 열가소성 복합재료 전문 중소기업 엑시머티리얼스와 공동 개발해 선보인 방탄 패널은 폭 3m, 길이 12m로 단일 규격으로는 세계 최대다. 기존 제품보다 폭이 3배나 넓고 취약부인 연결부가 없어 다른 제품보다 높은 방탄 성능을 보인다고 효성은 소개했다. 총알도 막아낼 수 있는 방탄 성능을 갖췄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방탄 선진시장인 유럽·미주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인 ‘밀리폴 파리 2015(Milipol Paris 2015)’에서 효성이 아라미드 원사인 알렉스(ALKEX)를 적용한 방탄 패널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효성 제공>

고객확보에 나섰다. 파리 테러 이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100여개 업체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금호고속 타고 남도 정취 ‘흠뻑’

나주·담양 등 5개 시·군 순회 ‘빛고을 남도투어’ 인기

고속버스 타고 남도여행 떠나요. 금호고속은 지난 21·22일 주말을 맞아 광주시와 함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 선정된 80여명과 ‘빛고을 남도투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호고속과 광주시가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빛고을 남도투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광주 도심 관광과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5개 시·군의 자연관광을 결합한 관광 상품이다.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에 3개 코스로 운영하며, 코스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버스에 탑승해 안내하는 게 특징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장성·담양코스의 백양사·죽녹원·환벽당·가사문학관·소쇄원 등을 차례로 탐방하며 남도의 맛과 멋에 빠져들었다. 빛고을 남도투어 이용요금은 3000원이며, 입장료·체류료·식비는 개인부담이다. 시간표 확인·사전 예약은 금호고속 버스한바퀴(www.kumhoaround.com)를 통해 가능하며, 유·스퀘어에서 현장예매도 가능하다. 문의 062-360-8502. /김대성기자 bigkim@

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명확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공유·소통·협력]

'위험성평가 인정' 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위원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30명 미만(건설업 120억원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 가능(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사업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일선기관 신청 및 문의

서울지역본부	02-6711-2834	전북지사	063-240-8533	경기동부지사	031-785-3316
서울북부지사	02-3783-8318	전북서부지사	063-460-3622	부천시지사	032-680-6542
강원지사	033-815-1011	전남동부지사	061-689-4952	대구지역본부	053-609-0523
강원 동부지사	033-820-2511	전남서부지사	061-288-8705	대구서부지사	053-650-6833
부산지역본부	051-520-0526	제주지사	064-797-7504	경북동부지사	054-271-2031
울산지사	052-226-0523	중부지역본부	032-510-0515	경북북부지사	054-478-8013
경남지사	055-269-0553	경기남부지사	031-259-7128	대전지역본부	042-620-5612
경남동부지사	055-371-7524	경기서부지사	031-481-7517	충북지사	043-230-7123
광주지역본부	062-949-8747	경기북부지사	031-828-1915	충남지사	041-570-3422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48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을 참고하시거나 ☎052-703-06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